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

[살전 2: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파레스시아스마이)[담대함을 얻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었다(행 16:22-23). 그러나 그는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3-5절] [이는 우리의 권면은 간사(플라네)[거짓]에서나 부정(不淨)에서 난 것도 아니요 계계속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증거하심이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말한 이유는 그들의 권면이 거짓이나 불결함이나 속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들의 권면이 순수하지 않았다면, 평안할 때에는 혹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환난 중에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환난 중에 담대히 거짓된 것을 말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담대히 말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전하라는 명을 받은 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환난 중에 할 말이 없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였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자유로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은 현실의 어려운 환경을 거슬러 담대히 일할 수 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거짓이나 불결한 동기에서 일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는 증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고 있듯이 바울 일행이 아무 때에도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아침의 말을 하지 않았고 더러운 이익을 구하여 탐심의 탈을 쓰고 거짓되이 행동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증거하실 수 있는 바이었다.

[6-8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며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됨이니라.

바울 일행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물론 그는 사도이므로 권위를 가질 수 있었고 존중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나 다른 이들에게나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은 그들의 순수함을 보인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은 이 세상의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므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그들의 상급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있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공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샅군은 복음을 빙자하여 단지 이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혼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다.

바울 일행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영혼들을 위해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들의 목숨까지 즐거이 줄 마음으로 일하였다. 그들은 유모가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것과 같이 유순한 자들이 되었고 영혼들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단지 말로만이 아니고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워하는 심정으로 일했다. 여기에 복음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또 하나의 덕이 있다.

[9-10절] [이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하였노라(전파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은 한번 더 자신의 복음 증거의 사역에 대해 말한다. 그는 자신의 수고와 애쓴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실을 언급한다. 이런 사실들은 그의 말씀 전파의 사역이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졌음을 증거한다. 그의 말씀 전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사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누를 끼쳤을 것이고 일하지 않고 편안히 검증을 받는 자가 되려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다시 간추려 말하기를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이라고 한다.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은 한마디로 바르고 흠 없이 행한 사역이었다. 이것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증인이요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말씀 사역에 대해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의 뒤를 따를 교회의 많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이 본받을 만한 일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은 범사에 거룩하게 행하고 바르고 흠 없이 행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11-12절] 너희도 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오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말씀 사역의 목적을 증거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으로써 그들을 불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목적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말씀과 기도 중심, 믿음 중심, 의와 선과 진실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은 거짓이나 불결함이나 속임으로 하지 않았고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하거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하지도 않았다. 거짓말을 일삼고 아침하고 탐욕을 품고 사람의 영광이나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들이며 삿군들이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진실하고 거룩하며 검소하고 자족하며 겸손해야 한다. 이

것은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덕이다. 우리는 진실하고 거룩하며 검소하고 자족하며 겸손해야 한다.

둘째로,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은 유순한 유모같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심정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였고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 했고 거룩하고 흠 없이 했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며 했다. 그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유순한 유모같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같이 처신한 것이다.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은 그를 본받아야 하고, 성도들은 그런 교훈을 잘 받아야 한다.

셋째로,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의 목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과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고, 또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하며 그의 계명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계 17:7-8]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뻥지킴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뻥지킴 없으나 장차 나을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적그리스도를 상징했다고 보이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저갱깊은 어둠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 본 예언이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으나, 역사상 적그리스도적 성격을 나타낸 나라들은 종종 있었다. 옛날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강대한 나라이었다. 헬라 시대에 수리아의 안디오키키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적그리스도적 인물이었다(단 8:9).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의 도미시안 황제(주후 81-96년)도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서운 핍박자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없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장차 깊은 어둠으로부터 올라올 나라로 묘사되었다. 이 나라는 마귀의 권세를 가진 폭력적 독재정권일 것이다.

[9-12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

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라. 전에 있었다가 시뻥지
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
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
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
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본문은 그 짐승의 일곱 머리가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이라고 설명해준다. 이것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 같다.
예로부터 로마는 ‘일곱 언덕’ 혹은 ‘일곱 언덕의 로마’
라고 불리었다. 만일 그 나라가 로마라면, 이 예언은
배교한 교회가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교회일 것이
며 또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그곳을 중심으로 삼고 활
동할 것이라는 예언일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중세시
대처럼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와 로마 천주교회는 또다
시 온 세계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가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일곱 왕이 일곱 나라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 일곱 나라들 중 이미 망한 다섯은 아마 애굽
나라, 앗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메대 바사 나라, 헬라
나라 등 다섯 나라이며, 지금 있는 하나는 로마 제국을
말하며, 아직 오지 않은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세계적인 강력한 독재정권일 것이
다. 본문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이 짐승은 여덟
째 나라이며 그것은 그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말한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나라를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이
라고 부른다. 우리는 오늘날 유럽연합(EU)이나 러시
아, 중국, 이슬람 세계 등을 주목한다. 열 뿔은 거기에
속한 많은 나라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열’(10)은 상징
적 숫자일 것이다.

[13-14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
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와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
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
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은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
도와 싸울 것이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하셔서 싸우실 마지막 전쟁이다. 이것은 아마 아마겟
돈 전쟁과도 연관될 것이다(계 16:15). 그 전쟁에서 어
린양께서는 이기실 것이다. 그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어린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 것이다.

[15-18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
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

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
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음녀 즉 배교한 교회는 마침내 적그리스도의 나
라에 의해 망할 것이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과 벗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 음행으로 간
주하시고 징벌하신다. 야고보서 4:4, “간음하는 여자들
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
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때 하나
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 그 음녀와 같은
타락한, 배교한 교회를 치실 것이다. 그 배교한 교회는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배교한 교회의 멸망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지도자들이 그
배교한 교회를 미워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
에 자기들의 뜻대로 할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러
게 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배교한 교회는 망
할 것이다. 그 교회는 물질적 부요와 세상 권세를 누릴 것
이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얼마 동안 그 배교한 교회
와 친근하고 그 교회를 사용하다가 마침내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다. 그러므로 참 성도들은 배교한
교회에 속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진실한 성도들은 이길
것이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배교한 교회의 미혹
과 핍박을 이기려면, 우리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
께 거하며 함께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
신앙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며 신구약성경의
모든 말씀과 교훈을 다 믿고 또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
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수요일 설교

주의 날

[말 4:1]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라. 보라, 극렬한 풀
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草芥)[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
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들을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극렬한 용광로같이 심히 두렵
고 무서운 날이 올 것이다(마 13:30, 40; 벰후 3:7, 10).
성경은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 불못도 밝

히 증거한다(계 21:8). 심판의 대상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이다. 사람은 교만하므로 악을 행한다. 교만한 자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거슬러 악을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할 것이다. 악인들은 초개갈을 것이며 그 뿌리와 가지들이 남지 않을 것이다.

[2-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빛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른 한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의 태양이 떠오르겠다고 예언되었다. 의의 태양은 의(義)를 주는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본다(사 9:2; 눅 1:76-79; 요 1:9; 8:12). 주께서는 빛으로 오셨다.

메시아의 사역은 치료하는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표현된다. 메시아께서 하시는 치료는 죄 문제의 해결을 의미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代贖)의 의(義)에 근거하여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메시아의 구원사역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치이다(롬 3:21-22).

메시아의 구원사역의 결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영혼들은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송아지들이 기뻐 뛰는 것처럼 기뻐할 것이다. 그것은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 즉 죄책과 지옥 형벌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자들의 기쁨을 묘사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다. 또 그들은 이전에 그들을 꾀박했던 악인들을 이길 것이다.

[4-6절] 너희는 내가 호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그가 호렘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 곧 율례와 법도이다. 우리는 그 법을 기억해야 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심판 날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이 엘리야는, 천사가 세레 요한의 부친 사가라에게 말한 대로,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

서” 온 세레 요한을 가리킨다(눅 1:17). 세레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마 11:12-14).

세레 요한은 메시아 앞에 와서 엘리야의 사역을 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다. 이 말은, 이전에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학대했던 악한 아버들이 그 자녀들을 돌아보는 선한 자들이 되고, 이전에 아버들의 경건한 교훈을 불순종했던 악한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착한 자들이 된다는 뜻일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사역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주로 그 땅을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극렬한 홍광로같이 심히 두렵고 무서운 날이 올 것이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 의인과 악인, 산 자와 죽은 자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날에 특히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지푸리기가 그 뿌리와 가지가 남김 없이 불태워질 것이며 재와 같이 밟힐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그의 계명들에 복종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빛을 비추실 것이며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태양이시다. 그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것은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빛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다. 4절, “너희는 내가 호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성경에 교훈한 대로 의롭고 선하게만 살아야 한다.

핵심내 ○ 빌립보서 골로새서 강해. 2판. 143쪽.

○ 신약성경 전통본문 옹호. 166쪽.

○ 공산주의 비평. 4판. 44쪽.

○ 요한1,2,3서 유다서 강해. 2판. 104쪽.